

## News

### 기업 대출 폭증했지만... 은행권 대출한도 아직은 여유

조선비즈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예대율은 평균 96.1%로 잠정 집계...

신예대출 올해부터 도입될 것을 대비해 은행들 원화예수금을 꾸준히 늘려온데다, 주택시장 위축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점 등이 영향

### KB국민은행, 인니 부코핀은행 최대주주 된다

더구루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당국의 승인을 얻어...현지 시중은행 인수에 성공...앞으로 주택금융, 소매금융, 디지털뱅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

KB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22% 지분을 확보해 부코핀은행 2대주주에 올라...현재 최대주주는 보소와그룹으로 23.4% 지분을 보유

### 기업은행에 물려드는 중기 대출, 쌓여가는 세금 부담

데일리안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6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단숨에 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지난 달에만 5.9조 급증...4대 은행 전체 물량과 맞먹어...연체율도 시중銀 두 배 달해...정부자금 투입 압박 가중

### 하나 1,256억, KB 367억... 은행들 "영업점 팔아 현금 쌓자"

시장경제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중 은행들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

특히 시중 은행들은 2분기 실적부터 코로나 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비축과 비용 절감에 총력...매물은 대부분 유희(遊休) 영업점

### '민식이법' 4월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83만건..."중복보상 안돼"

뉴스1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진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며 4월 한 달간 85만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

금융당국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장기보험 해약-약관대출 올 들어 첫 감소

동아일보

1월 2조3,126억 원이던 주요 생·손보사의 해약한급금은 3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4월 장기해약한급금은 2조2,444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27.7% 줄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시장의 위기의식이 상당 부분 진정된 것 아니냐는 긍정적 전망...하지만 업계에서는 선부른 낙관을 경계

### 금융당국, ABS 발행기업 신용도 제한 폐지..."혁신기업 자금조달 통로 확대"

뉴시스

금융당국,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기로...

다만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5% 정도 보유하게 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는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초저금리에 역마진 우려... 발행어음 운용 고심

디지털타임스

시중금리가 추세적인 하향곡선을 그리는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발행어음 수요가 꾸준히 증가...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금 운용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가...자금을 굴릴만한 수익원이 마땅치 않아...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